메르세데스- 벤츠 새 중형세단 E클래스 본사 기자 시승기

지난달 출시된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E Class(더뉴이클래스) 세단이 10일 광주 무등산 자락을 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젊어진 디자인에 안전성·안락함 그대로

4년만에 부분변경 … 유선형으로 다듬어
코너구간 브레이크 늦춰 밟아도 안 밀려
고속도로 주행 차와 일체감 '세단 대명사'

'도로에선 시선을 끌면서도 운전자에겐 안전성과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덤이라 하기엔 경제성마저 훌륭하다.'

세단의 모든 것을 갖췄다는 평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형세단 E클래스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10일 오전 지난달 말 출시된 The New E Class 220 CDI(더 뉴 이클래스, 170마력·40.8kg.m·2143cc)를 시승했다. '벤츠는 은색'이라는 속설처럼 은색의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 새 E클래스의 세단은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모델)된 모델이다. 직렬 4기통 2.2ℓ의 직분사 디젤엔진과 7단 자동변속기는 전 모델과 같지만 외관은 신차 수준으로 바뀌었다. 앞면 그릴과 램프, 뒷면 램프가 디자인의 핵심.

시승한 아방가르드 모델은 흔히 말하는 '왕삼각별'을 앞면 그릴에 넣고, 스포티함을 강조했다. 램프의 디자인은 LED 등의 배치가 현란할 정도다. 기존 E클래스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 램프 디자인을 유지했지만 새 모델은 통합한 대신 LED 발광으로 이를 구분시켰다. 전체적으로 유선형으로 다듬으면서 디자인이 젊어진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느낌마저 돈다. 뒷면 램프 역시 다소 직선이 가미되면서 공격적으로 변했다. 17인치 5-트윈스포크 휠 역시 역동적이다.

내부 디자인은 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 센터페시아에 아날로그 시계를 넣은 정도가 차이점. 굵직한 선과 금속재질의 공조기 그릴은 다소 딱딱해보이지만 금세 적응된다. 바늘 막대가 보이지 않는 대신 가운데 LCD에 모든 정보를 모아 놓은 계기반은 대낮에도 좋은 시안성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휠은 적당한 마찰력과 함께 부드러운 촉감을 준다.

버튼 시동키를 누르고,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장착된 칼럼기어를 D로 내리자 부드럽게 출발한다. ECO 버튼은 16.3km/ℓ의 연비를 자랑하는 이 차의 핵심기능이다. 시내주행 시 정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1초 뒤 시동이 꺼진다. 브레이크에서 슬며시 발끝을 떼는 순간 다시 시동을 거는 식이다.

시승코스는 무등산을 거쳐 담양 소쇄원~담양읍 쪽으로 정했다. 새 모델의 디자인 덕분인지 사이드미러로 새차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무등산장 가는 길의 오르막에 다다르자 진가를 발휘한다. 디젤엔진의 토크는 치고 나가는 맛을 제대로 보여준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작동했음에도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없다. 오르막을 치고 올라 코너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잠시 늦춰 밟았다. 하지만 밀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 사이 시트는 몸을 꽉 붙든다.

고속도로에서는 명성 그대로다. 저속 시 느껴지던 소음 그대로 순식간에 시속 100km를 넘긴다. ECO모드에서 스포츠모드로 버튼을 누르자 고RPM으로 속도를 치켜 올린다. 독일산 차가 그렇듯 적당한 엔진소음과 주변소음을 살리면서 운전자에게 감각을 더한다. 잠시 욕심을 내 페달을 더 밟자 차와 일체감이 느껴진다.

광주방향 진입로 표지판이 보여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자 지면을 움켜쥐는 것처럼 속도를 쭉쭉 떨어뜨린다. 안전성에 더해 믿음직스럽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다시 시내주행에 들어서면서 ECO 기능을 켰다. 시동이 꺼지면 에어컨은 약해지지만 여전히 시원한 바람을 내뿜는다. 신뢰감이 드는 차체, 여유있는 힘에 쾌적함은 기본. 세단의 대명사답다.

E220 CDI 아방가르드 모델의 가격은 6230만원, 4륜구동을 더한 E 250 CDI 4Matic은 7110만원이다. 디자인에 다소 부드러움을 더한 엘레강스 모델은 E200 6020만원, E 300 6780만원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올 상반기 아파트 경매건수 26% 감소

광주지역 아파트의 올 상반기 경매건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전문 지지옥션은 10일 광주지역 올 상반기 아파트 경매물건 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353건)보다 26.4%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 달 평균 물건 수는 채 50건이 안돼 낙찰률은 56.2%에 달했다. 낙찰가율은 9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반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는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6단지 아파트로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한 차례 유찰된 후 감정가의 96.5%에 낙찰됐다. 상반기 낙찰가율 1위는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우미아파트로 지난 1월30일 감정가의 166%에 낙찰됐다. 상반기 감정가 부문은 서구 치평동 갤러리아파트가 차지했다. 감정가 4억8000만원에서 한 번 유찰돼 6월12일 변경된 상태다.

전남지역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경매시장은 모두 361건이 진행된 가운데 낙찰률이 38.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낙찰가율도 86%로 낮은 편이었다. 나주시 대호동 대방노블랜드1차 아파트에 18명이 몰려 상반기 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전남 아파트 낙찰가율 1위는 나주시 용산동 주공2단지아파트로 9명이 응찰해 감정가 대비 123%에 낙찰됐다. 감정가 1위는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롯데캐슬로 3억7900만원이었으나 한 차례 유찰된 끝에 낙찰가율은 77%에 그쳤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은행 가계대출 한달새 6조 급등

6년 7개월만에 최대폭
취득세 감면조치 영향

은행의 가계대출이 6년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6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이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규모인 46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월 대비 증가폭은 5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6년11월 6조9000억원이 늘어난 이래 가장 크게 급증한 것이다.

김정현 한은 금융시장팀 차장은 "6월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주택거래량이 급증하며 대출 역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월 6400호(戶)에서 6월 9000호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에 주택담보대출도 3조8000억원 증가한 320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차장은 그러나 취득세 감면조치가 사라진 7월엔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역시 6월 중 9000억원이 늘어 14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대출은 3조1000억원 확대한 612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3조2000억원 늘어난 462조9000억원이었다. 대기업대출 잔액(149조4000억원)은 분기 말 부채비율 관리로 오히려 1000억원 줄었다. /연합뉴스

박종수 전남농협본부장이 10일 오전 영암군 학산면의 보리 수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전남농협, 보리수매 4% 저조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가 올 한해 목표한 하곡(보리)자체수매가 4%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10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13년 전남농협 수매목표는 1만4000톤 이지만 10일 현재 520톤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수매목표가 저조한 것은 일기불순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산지가격이 오르자 민간 중간상인들 적극적인 물량확보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농협은 지속적인 보리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채종포를 통한 우수산 종자공급과 시장가격과 연동한 수매가격제도 마련 등의 제도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농협 자체수매는 2011년 정부의 하곡수매 폐지로 인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매제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닭 370원 오를때 삼계탕 2천원 올라

삼계탕 가격이 지난 5년 동안 주재료인 닭의 가격보다 5배나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008~2012년 닭과 삼계탕의 가격 인상분을 조사한 결과 닭이 2034원에서 2404원으로 370원 오를 때 삼계탕은 1만993원에서 1만3091원으로 무려 2098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닭을 포함해 수삼·찹쌀 등 식재료와 인건비·임대료 등을 포함한 가격은 같은 기간 1107원 올랐다. 이는 삼계탕 인상분의 절반 정도다.

협의회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등을 고려하면 삼계탕 가격은 현재보다 7~8%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삼계탕 유통·외식업계에 가격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가세요!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병원]	061)287-4100
여로관광여행사 [순천 궁전예식장 건너편]	061)742-1270

무인출발 [APPF05-PRQ] 팍상한폭포/따가이따이 [호핑투어] 마닐라 4박5일 출발일 8월 11일(일) 1,049,000원
※포함 사항: 왕복항공권, 여행지입장료, 인천공항세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550페소
※불포함 사항: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공동경비 10$ 방석, 구명조끼 및 기타비용, 물값 및 기타 개인경비
※특 전: 팍상한 폭포, 승마관광 포함, 캐논코브 리조트 1박, 바탕가스 아일랜드 호핑투어, 사브사브 특식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마카오직항 오감만족, 마카오 & 홍콩
7월27일,30일,8월 2일, 5일 2박 4일(총4회)
[CHPF05-NX1] *스탠리마켓* 마카오/홍콩 4일 899,000원~
※특전: 에그타르트 ※특식: 얌차식,포르투갈식
[CHPF07-NX1] *오픈탑버스* 마카오/홍콩/심천 4일 949,000원~
※특전: 에그타르트,오픈 탑 버스 ※특식: 얌차식,포르투갈식
[CHPF05-NXA] *쉐라톤호텔2박+마카오1일관광* 마카오/홍콩 4일 1,099,000원~
※특전 : 2012년 9월 완공된 초특급 호텔 마카오 쉐라톤 (디럭스룸) 2박 숙박 ※일정: 마카오 1일관광+자유일정
[CHPF05-NXC] *NO TIP+홍핑360+나이트투어* 마카오/홍콩 4일 1,099,000원~
※특전: NO TIP, 홍핑케이블카,빅토리아피크트램 탑승(편도), 나이트투어(홍콩:2층버스+야시장+스타페리/마카오:윈분수쇼+마카오타워+나무쇼) ※특식: 점보레스토랑,얌차식,포르투갈식

세부직항 천혜의 휴양지 필리핀 세부
8월7일 ~ 8월17일(총4회)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특급호텔 [APPF01-Z2] 세부 4일/ 5일 899,000원~
※특전 :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특식 :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샤브샤브
5성급호텔 [APPF01-Z2] 세부 4일/ 5일 1,099,000원~
※특전: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현지식 팔방수, 롬당 서비스 제공 (현지 과일 1kg, 할로할로 -현지식 팥빙수 제공 등) ※특식: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 샤브샤브 고등어 불고기 특식
4성급리조트 [APPF02-Z2] 세부 4일/ 5일 999,000원~
※특전: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특식: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 샤브샤브
5성급리조트 [APPF02-Z2] 세부 4일/ 5일 1,199,000원~
※특전: 스쿠버다이빙 무료강습(다이빙샵 수영장) + 바나나보트, 까오비안 아일랜드 (하나투어 전용 섬) 호핑투어, 현지식 팔방수, 롬당 서비스 제공 (현지 과일 1kg, 할로할로 -현지식 팥빙수 제공 등) ※특식: 하나팟(하나투어 전용식당) 샤브샤브 고등어 불고기 특식

광주/전남 기획상품
인천출발 동유럽 5개국 9일 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오스트리아 출발일 9월 27일(금) 3,900,000원
※불포함 사항: 개인경비, 일정외 선택관광, 공동경비, 인솔자/가이드/기사팁, 물값 ※포함 사항 : 일정상 식사 & 입장료, 3대 옵션포함, 광주-인천공항수송, 국내식사2회, 유류세(30만원)
미동부 캐나다 8박 10일 출발일 9월 13일(금) 3,990,000원
※불포함 사항: 유류할증료, ESTA 발급 수수료(20,000원),가이드/기사팁, 물값, 선택관광 경비 및 기타 개인경비 ※포 함 사 항: 왕복항공료, 항공TAX, 전일정 식사 & 입장료

집중모객 [JKP744-CRD] 특가 야나가와 뱃놀이 카멜리아 3박4일 출발일 299,000원
7월 7,14,17~23일 8월 18~21일 9월 1,3,6,8,10,22,24일
※특 전:아소팜빌리지 호텔급 + 힐튼씨호크 호텔급 특급2연박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우는 가와쿠다리 뱃놀이 체험 세계최대 칼데라 아소 활화산 관광 대표 온천마을 벳부 & 유후인 관광 후쿠오카 최대 쇼핑몰 캐널시티 자유관광
※불포함 사항:유류할증료(3만원), 가이드/기사팁(3만원), 선내식2회, 현지 석식1회, 국내수송

트레킹 상품
[AMK113-ZEQ] 코타키나발루 정상등정 & 산호섬 휴양 4박5일 출발일 8월 10일(토) 1,680,000원
※불포함 사항 : 기타개인경비 ※포함사 항 : 인천 • 현지 공항세, 일정상의 차량 숙박, 식사,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특전 : 스팀봇 (무제한 뷔페, 특식포함) , 산호섬 스노클링 장비 무료 대여 키나발루산 등반증명서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외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종로구청) ■관광불편신고 Tel 1577-1233 \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